

한영번역 수업 개선을 위한 시도로서 팀 티칭 사례 모색

최경희(평택대학교)

1. 서론

국내에서 한영번역은 통번역대학원에서 제공하는 필수 과목 중 하나지만, 한영번역을 가르칠 수 있는 영어 원어민 교수자는 부족한 현실이다. 한국어 원어민 교수자 수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 영한번역과 달리, 모국어 방향으로 교육할 때 갖는 편안함과 확신을 가지고 해당 번역 과목을 교육할 수 있는 인원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¹⁾ 교육 현장을 보면, 영어 원어민이 아닌 한국어 원어민으로 한영번역을 공부하는 학생이 많고 통번역 과정 교수진도 이러한 통번역 과정을 거쳐 번역시장에서 통번역사로 일하다가 강의 를 하는 한국어 원어민이 대다수일 것이다. 최근에는 국내에서 통번역을 전공하는 영어 원어민도 찾아볼 수 있어 향후 변화가 있을 수 있겠으나 아직은 그 수가 적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영어가 B 언어인 한국인 교수자들 사이에 한영번역 과목은 되도록이면 맡기를 꺼리는 기피 과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

1) 한국어 원어민과 영어 원어민 이외에, 이중 언어 사용자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겠으나, 이중 언어 사용자에 대한 논의는 본고와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본고에서는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 이중 언어 사용자에 대한 내용은 제외한다.

한영번역을 영어 원어민이 아닌 한국어 원어민이 주로 담당하고 교육해야 하는 이러한 독특한 국내 상황은 번역 효율에도 반영된다. 영국이나 미국,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모국어 방향으로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어, 모국어 방향과 외국어 방향의 번역 효율 차이가 의미가 없지만 우리나라는 외국어 방향으로의 효율이 모국어 방향 효율보다 높다(Choi & Lim, 2000, pp. 385, 388). 회소성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미주나 유럽 등과 다른 한국의 특수한 상황으로(Lim, 2005 참조), 한영번역 교육도 국내 상황에 맞는 특수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한국인 원어민 교수자와 영어 원어민 교수자가 협력하여 교육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인이 수업을 진행하고 외국인이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교수 방안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협력 수업, 즉 팀 티칭 방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현재 국내에서 한영번역 수업을 진행하는 제반 여건을 고려해볼 때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실행연구(action research)의 성격을 갖는 본 연구에서는, 먼저 팀 티칭이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영어 교육 분야를 살펴보고, 번역학에서 이루어진 연구 중 본고에 적용해볼 수 있는 근접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국내 한 통번역교육 기관을 일례로 한영번역 과목의 팀 티칭 방안 및 전략을 소개하려고 한다.

2. 국내 통번역대학원 한영번역 교수자 현황 및 번역 효율

2.1 교수자 현황

한영번역 강의 방식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한국인 교수자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있고, 외국인 교수자가 가르치는 방식, 그리고 한국인과 외국인이 한 팀이 되어 가르치는 팀 티칭 방식이 그것이다. 세 번째 방식에는 한국인이 강의하고 외국인이 감수를 진행하는 등 비전형적인(untypical) 방식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통번역대

학원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방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일부의 경우 외국인 교수자 강의와, 마지막으로 팀 티칭 방식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1>은 2023년 2학기를 기준으로 국내 10개 통번역대학원의 한영번역 강의방식을 조사한 결과이다.²⁾ 우선, 한국인이 강의하는 전통적인 방식은 10개교 중 절반에 해당하는 5개교에서 진행되고 있었고, 외국인 교수자 한 명 이상 또는 한 과목³⁾이라도 외국인이 진행하는 한영번역 과목이 있는 경우는 3개교가 해당되었다. 이 중 외국인만 강의하는 학교는 1곳이었고 나머지 2곳은 한국인 강의를 더 많았다. 마지막으로, 한국인과 외국인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팀 티칭 방식의 경우는 2개교에서 진행되고 있었으며, 이 중 1곳은 팀 티칭 비율이 전체 한영번역과목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모두 전문번역이었다. 다른 1곳은 한영번역과목이 학기당 한 과목씩 개설되고 있는데 일반번역 과목으로 팀 티칭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로 미루어보건대, 국내 통번역대학원에서는 대체로 한국인이 수업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가장 우세하고, 외국인 교수자가 진행하는 강의를 있으나 많지는 않으며, 팀 티칭 방식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국내 통번역대학원 한영번역 강의 방식

	한국인 교수자	외국인 교수자	팀 티칭
학교 수	5	3	2
방식	한국인 강의	외국인 교수자 1과목 이상 강의	한국인과 외국인 교수자 팀 티칭
세부 내용	한국인 100%	1곳: 외국인 100% 2곳: 한국인 강의를 더 많음	1곳: 팀 티칭 50% 이상 1곳(학기 당 1과목): 팀티칭 100%

2) 수업시간표를 기준으로 조사했으며, 수업시간표 접근이 어려운 일부 학교의 경우 외국인 교수자 프로필에서 해당 교수의 강의 과목과 전공을 참고했다.

3) 정량적 차이를 고려해 놓기 위해 동일 과목이라도 분반 시 다른 과목으로 처리하였다.

2.2 번역 요율

상기 통번역대학원 중 3개 대학원의 번역요율을 살펴보았다. 이들 대학원을 선택한 이유는 자체 통번역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요율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대학원 세 곳 모두 동일하게 한국어에서 외국어 방향으로의 번역 요율을 홈페이지 상단에 배치시키고 있는데, 이에 따라 한영번역이 영한번역보다 앞부분에 위치하게 된다. 이는 국내 공공기관에서 외국어에서 한국어 방향의 번역(28.5%)보다는 한국어에서 외국어 방향의 번역(71.5%)을 더 많이 의뢰한다는 신지선(2007, p.79)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2007, p. 79; 박지영, 2018, p. 148). 아래 <표2>를 보면, 한영번역 요율이 영한번역 요율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다. 한영번역은 한글 원문 1자당 가격이고 영한번역은 영어 단어 1단어 당 가격으로 되어 있는데, 둘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 언뜻 봐도 한영번역의 요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2

3개 통번역대학원 통번역센터 번역요율⁴⁾

	통번역대학원1	통번역대학원2	통번역대학원3
한영	220원(원문 1자, 공백 포함)	180~300원(원문 1자)	100~200원 (원문 1자 공백 포함)
영한	240원(원문 1단어)	220~350원(원문 1단어)	130~200원(원문 1단어)

한영번역 요율이 영한번역에 비해 높은 현상은 한국인이 한영번역을 하게 되는 독특한 국내 상황과 맞물려 있다. 상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모국어 방향으로만 번역을 하는 영국이나 호주 등 국가에서는 언어 방향에 따른 요율이라는 개념이 없겠지만, 한국의 경우는 한영방향으로 번역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반대 방향의 번역보다 그 수가 적을 것이며 이에 따른 수요와 공급 법칙이 작용할 것이다. 즉, 영한번역보다 한영번역을 고객의 니즈에 맞게 잘 해낼 수 있는 한국인 번역사의 수가 적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영번역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4) 각 통번역센터 홈페이지에서 2024년 1월 8일 자료 확인한 요율 현황이다.

좋은 교수자에게 배워서 한영번역을 잘 하면 보수 면에서뿐 아니라 그 수가 적기 때문에 번역사 지위 면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에게 최대한 한영번역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수방식에 대한 개발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팀 티칭 및 감수 관련 연구

번역 분야에서 팀 티칭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번역학에서는 학생들이 공동의 학습 목표를 향해 함께 학습하는 협동 학습(collaborative learning)이나 동일한 번역 문서를 한 명 이상의 번역사가 함께 번역하는 공동 번역(collaborative translation) 쪽의 연구(Al-Shehari, 2017; Zwischenberger, 2022 등)가 주로 보인다. 국내 번역학의 경우도 팀 티칭에 대한 연구는 찾을 수 없었고, 비교적 관련이 있을 법한 연구로 한영번역 감수에 대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졌다. 한영번역 감수에 대한 연구는 한국인이 수업하고 외국인이 감수하는 방식으로는 활용도가 있어 참고할 수 있겠으나, 그 자체만 가지고 한영번역 팀티칭 방식으로 사용하기에는 적용의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영어와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한영번역 교육 분야와 어느 정도 유사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영어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진 팀 티칭에 대한 연구를 조사해서, 한영번역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번역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감수 및 감수자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고 이 두 분야의 연구를 종합하여 본고의 한영번역 교육에 적용해 보기로 한다.

3.1 영어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진 팀 티칭 연구

영어교육 분야에서 팀 티칭(team-teaching)은 코 티칭(co-teaching), 그리고 협력 수업(collaborative teaching)과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지만, 각각 그 의미가 구별되어 사용되기도 한다(Jang, 2006, Liu, 2013, p. 105에서 인용). 먼저 팀 티칭이 두 교수자 간 동일한 지위와 기여도를 상정한 용어라면, 코 티칭은 교육 방식에 있어 다양한 협력의 형태를 아우르는 용어로 볼 수 있

고, 협력 수업은 두 교수자가 협력하는 과정에 방점이 있는 것으로 정의된다(Reinhiller, 1996, Liu, 2013, p. 105에서 인용).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가 코 티칭이나 협력 수업에 가깝다고 볼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팀 티칭이라는 용어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Jung, 2020, p. 50), 본고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팀 티칭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국내 영어 교육 분야에서 팀 티칭에 대한 연구는 1995년 교육부 주도로 이루어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빙 프로그램(English program in Korea, EPIK)의 도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학생들과 교사의 말하기 능력 즉, 영어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을 강화하고 영어권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새로운 교수법을 도입하고자 추진되었다.⁵⁾ 팀 티칭 연구는 주로 초중등 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다. EPIK 도입 초기에는 한국인 교사가 주도하고 영어 원어민이 보조 교사의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 중등 교육의 경우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영어 원어민이 주도하고 한국인이 보조하거나 원어민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형태가 늘고 있다고 한다(이미진과 성귀복, 2011, p. 226, 이현우 등, 2010에서 인용). 대학교에서는 한국인이 보조적 역할, 즉 과목의 개요나 문화적 차이를 설명하거나 학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Kim, 2010, p. 115). 그런데, 대학교에서의 팀 티칭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박옥희, 2015, pp. 42-43; Huh & Lee, 2015, p. 200), 최근 수년 안에 발표된 연구는 찾기도 어려웠다.

그럼에도, 영어 교육 분야에서의 팀 티칭 연구가 한영번역 교육에 있어서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팀 티칭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된 연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인 교수자와 영어 원어민 교수자로 구성된 팀 티칭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초중등학교에서의 팀 티칭 뿐 아니라 대학교에서의 팀 티칭 모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초중등: 길인숙, 2004; 정길정 외, 1999; 조정순, 2002 등; 대학: 김미영, 2013; 김미영과 김재윤, 2013; 여경희, 2012 등). 이러한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에서는 영어 교육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Friend 등의 다섯 가지 코 티칭 형태(co-teaching structure)를 살펴보고 한영번역 교육에서

5)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빙 프로그램(EPIK) 홈페이지 인사말 참조.

활용할 수 있는 적용점을 찾고자 한다(Friend 등, 1993, p. 8; 박옥희, 2015, p. 44). 다섯 가지 코 티칭 형태는 장애인 학생이 비장애 학생과 함께 공부하는 통합교육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데, 이 모델에서는 코 티칭(co-teaching)을 여타 교수 형태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1) 교수-지원 형태(one-teach, one-assist)

주교사와 보조교사가 협력하는 형태로, 주교사가 수업을 리드하고 보조교사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는지 살피고, 필요 시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2) 스테이션 교수 형태(station teaching)

학생을 두 집단으로 나눈 후, 두 교사가 각각 자신이 가르칠 내용을 어느 한 집단에 가르친다. 이후 집단을 바꾸어 가르침으로써 모든 학생이 두 교사의 수업을 모두 듣게 되는 방식이다.

3) 평행형 교수 형태(parallel teaching)

교사가 함께 수업 내용을 계획한다. 학생을 두 집단으로 나누는 것은 스테이션 교수 형태와 같지만, 모든 학생이 두 교사의 수업을 듣게 되는 스테이션 교수 형태와는 달리 각 교사가 한 집단에게만 수업을 진행한다.

4) 선택적 교수 형태(alternative teaching)

한 교사가 소그룹을 가르치고 다른 교사는 나머지 대다수의 학생을 가르친다. 소그룹을 가르치는 교사는 연습이나 복습, 보충수업 등을 실시한다.

5) 협력형 교수 형태(team teaching⁶⁾)

두 교사가 수업을 동등하게 분담한다. 예를 들어, 토론 지도나, 개념 및 학습 전략 관련 시범, 그리고 적절한 질의응답 방식 교육 등을 함께 있어서 두 교사가 교대로 진행할 수 있다.

6) 여기서 팀 티칭은 논문 전체에 사용되고 있는 개념과는 다른, Friend 등의 다섯 가지 코 티칭 형태의 하위개념이다.

Friend 등의 코 티칭 형태를 번역 수업에 적용해보면, 5가지 형태 중 첫 번째 교수-지원 형태와 두 번째 스테이션 교수 형태가 적용 가능해 보인다. 첫 번째 교수-지원 형태는 예를 들어 한국인 교사가 주교사를 맡아 번역 수업을 진행하고 원어민 교사는 주교사의 요청에 따라 번역된 텍스트의 피드백 등 요청 받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스테이션 교수 형태는 학생을 두 집단으로 나눠서 학생들이, 예를 들어 한국어 교사의 수업을 먼저 듣고 나서 원어민 교사의 수업을 듣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두 수업을 다 듣도록 한다. 상기 스테이션 교수 형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업 내용을 두 교사가 같이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인 교사는 한국어 출발어 텍스트 분석과 한국어와 영어 간 이중 언어적 측면 점검에 강점이 있는 만큼 해당 강점에 중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하고, 원어민 교사는 단일 언어 점검에 강점이 있으므로 도착어 텍스트 즉, 번역 텍스트의 표현 등에 초점을 둘 수 있다. 이 두 가지 형태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는 교수진의 역량과 자발성, 그리고 교수자 간 소통 등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원어민 교수자가 한국인 교수자와 번역 수업을 나누어서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다. 번역에 대한 지식과 경험 없이 언어적 능력만으로 번역 수업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즉, 세 번째 평행형 교수 형태와 다섯 번째 협력형 교수 형태는 원어민 교수자가 한국어 능력 특히 번역 경력이 없어 함께 수업을 설계하거나 동등하게 수업을 분담하는 것이 어렵고, 네 번째 선택적 교수 형태의 경우 역시 원어민 교수자가 예·복습이나 보충수업을 자체적으로 지도하기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또한 수업과 관련한 학교의 정책적 지원 정도에 따른 제약이 있을 수 있어 행정적 요소를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두 교수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시수 조정의 유연성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3.2 번역학 분야에서의 감수에 대한 연구

국내 번역학 분야에서 감수에 대한 연구는 손에 꼽힐 정도로 적는데, 본 고에서는 이 중 세 가지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국내에서 번역 감수는 영한번역 방향보다는 상기 언급한 외국어 방향으로의 번역이 다수를 이룰 것

이다.7) 한영번역의 감수에 있어 주요 부분 중 하나는 한국어 출발어 텍스트와 영어 도착어 텍스트(번역)를 읽어보고 수정이나 개선할 부분을 바로잡음으로써 번역의 품질을 개선하는 작업일 것이다. 이항은 번역 감수에 대한 해외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번역 감수의 정의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감수란 번역물의 생산과정의 일부로, 번역물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혹은 번역사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번역문 전체를 원문과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대조 검토하여, 필요한 수정을 가하는 행위를 지칭한다(이항, 2003, p. 180)

이러한 정의는 도착어 텍스트를 출발어 텍스트와 비교하여 필요한 곳을 수정함으로써 번역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번역사에게도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번역의 과정으로 보는 포괄적인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도착어가 외국어인 한영번역의 경우 번역감수는 번역물의 표현 등을 개선하고 이를 번역사가 학습하여 차후 번역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의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도착어 텍스트와 출발어 텍스트 간 대조 검토(intertextual review) 이외에도 도착어 텍스트 자체에 대한 검토(intratextual review)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텍스트 간 대조 검토와 도착어 텍스트 검토를 아우르는 감수방식은 실제 번역 감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실제 번역 감수 현장을 들여다본 연구로, 번역회사의 입찰제안서를 분석한 박지영(2018)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저자는 번역회사에서 도착어 텍스트와 출발어 텍스트를 비교하는 이중 언어 감수(interlingual review)를 거친 후 도착어 텍스트를 읽는 단일 언어 감수(intralingual review)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단일 언어 감수는 이중 언어 감수를 거쳤으므로 출발어에 대한 “충실성이 이미 검토”된 상태이며, 번역된 내용을 원어인 감수자가 임의로 바꾸지 않도록 하여 감수자에 의한 “오역의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p. 167). 또

7) 영한번역에서 이루어지는 소위 ‘초벌 번역’을 영한번역 감수로 보는 관점도 있을 수 있겠으나, 본고에서는 이를 번역의 일반적인 과정으로 다루지 않는다.

한 연구는 감수의 절차 이외에도 감수의 대상(어휘와 문체 등)을 일괄하여 정리하는 한편, 분석 대상인 국내 번역회사의 감수 단계에 빠져 있는 번역의 논리와 텍스트성 등은 번역사가 챙겨야 하는 상황임을 설명하고 있다(p. 168). 이상의 내용을 고려해볼 때, 박지영(2018)은 실제 번역 감수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감수 절차를 보고하고 감수의 대상을 상세히 제시함으로써, 번역 감수 분야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다.

감수와 관련한 다른 연구로, 박지영(2020)은 한영번역에 대한 원어민 감수자를 주제로 한 연구에서 번역 경험이 있는 원어민을 가장 적합한 감수자로 보았다. 이 연구에서 번역 경험이 없는 감수자는 한국어어를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한국어 이해 능력이 없는 감수자에 비해 번역 감수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p. 18). 더불어 본 연구는 번역 경험이 있는 감수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안으로 원어민 감수 품질에 대한 평가 장치를 마련하고 번역사가 평가과정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p. 19). 그밖에도 원어민 감수자를 위한 교육과 지침을 제공하되 효과적인 감수전략을 제시하고 (예를 들어, 글을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만 오류를 정정하거나, 가능하면 원문을 확인하여 논리와 사실관계를 검토함) 흔히 하기 쉬운 실수 등의 정보를 취합·제공할 것을 제안했다(p. 20). 사실, 번역사의 참여는 감수 품질 과정뿐 아니라 원어민 감수자를 위한 교육과 지침 마련 과정에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감수자가 번역 경험이 있는 원어민인 경우가 드물며 번역 서비스 제공업체담당자도 번역 경험이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결국 번역사의 협조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과정에 번역사를 참여시키는 경우가 드물 것으로 보여, 본 제안은 제안으로 끝날 우려가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인 교수자와 영어 원어민 교수자 간 팀 티칭 방안을 제시함에 있어서 한국인 교수자가 수업을 진행하고 영어 원어민 교수자는 번역본 감수를 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상기 영어교육 분야 연구 중 Friend 등의 다섯 가지 코티칭 구조(co-teaching structure)에서 교수-지원 형태(one-teach, one-assist)에 해당한다. 학생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두 교수자가 두 그룹을 번갈아가며 가르치는 스테이션 교수형태는 교수-지

원 형태보다 두 교수자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동등하여 엄밀한 의미의 팀 티칭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 대개 번역 경험이 없고 한국어가 부족한 원어민이 대다수임을 감안할 때 적합한 방법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교수-지원 형태의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감수 측면에서는 한국인 교수자가 이중 언어 감수를 진행하고 원어민은 단일 언어 감수를 진행할 수 있겠다. 또한 논리와 텍스트성 그리고 문법과 어법은 두 교수자가 자신이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당 내용을 담당하는 것으로 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 품질 평가와 지침마련은 감수한 내용이 축적됨에 따라 품질 향상 방안을 두 교수자가 같이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4. 교수-지원 형태의 예시

하기에서는 국내 한 통번역대학원에서 한영번역 과목을 한국인 교수자가 주도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영어 원어민 교수자는 주로 학생 번역을 감수하는 형태, 즉 교수-지원 형태로 팀 티칭을 진행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한영번역 수업에서 활용 가능한 팀 티칭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4.1 방법 및 절차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통번역대학원에서는 Friend 등의 코 티칭 구조에서 교수-지원 구조에 해당하는 형태의 한영번역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스테이션 교수형태로 진행을 시도한 적도 있으나, 원어민이 번역 경험이 없고 한국어도 원활하지 않아 스테이션 교수 형태로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각각 2시간씩 동일한 시간을 배분 받아 수업을 진행했지만, 수업 계획이나 수업 진행 절차 등 모두 한국인 교수자의 주도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원어민 교수자는 자신의 전공분야가 아닌 내용을 수업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원어민 교수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도 떨어졌다. 이에 따라 실효성 부족으로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한 학기 만에 종료된 바 있다.

교수-지원 형태의 수업은 통번역대학원에서 2시수가 주를 이루는 다른 수업과 달리 3시수로 진행되었다. 한영번역 수업 2시수 그리고 원어민 감수

는 1시수로 나왔기 때문이다. 원어민 감수자는 번역 경력이 없고 한국어에 대한 지식은 낮으나, 모두 인문계 박사 수료 이상으로 박사 논문을 쓰고 있거나 써 본 경험이 있어 영어 도착어 텍스트 분석 및 표현 수정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수업은 한국인 교수자가 진행하고 원어민 감수자는 수업에 참석하지 않고 이메일로만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한국인 교수자가 전체 수업을 계획하고 지휘했는데, 주로 출발어 텍스트의 분석과 출발어 텍스트의 내용이 도착어 텍스트에 제대로 번역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텍스트 간 관계(intertextual relationship)를 살펴보는 데 주안점을 두었고 도착어 텍스트의 문법과 용법도 일부 피드백을 해주었다. 더불어 단일 언어 사전 및 언어 사전 사용법, 구글 및 코퍼스를 사용한 표현 찾기 등 다양한 인터넷 리소스 사용법을 알려주었다. 원어민 교수자에게는 출발어 텍스트와 그에 대한 샘플 번역을 같이 보내어 출발어 텍스트의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리하게 도착어 텍스트의 내용을 수정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박지영, 2018, p. 167). 원어민 교수자는 학생 번역본을 읽고 단일 언어 감수를 수행했으며 영어 문법과 표현, 용법 그리고 텍스트 전체 구조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했다. 논리 전개는 두 교수자 모두 이슈가 있는 곳에 피드백을 제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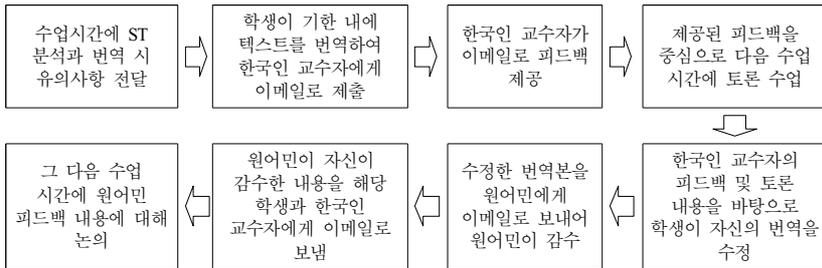
상기 피드백은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첫 번째 단계는 한국인 교수자의 피드백이고, 두 번째 단계는 영어 원어민 교수자의 피드백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학생들이 각자 번역을 한 후 한국인 교수자에게 이메일로 보내면 한국인 교수자가 주로 이중 언어 피드백(interlingual review, 1차 피드백)을 제공했다. 이러한 1차 피드백을 바탕으로 수업시간에 교실에 모여 2시수 토론 수업을 진행했다. 이후 수업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번역을 수정한 후, 수정된 번역본을 원어민 교수자에게 이메일로 보내어 단일 언어 피드백(intralingual review, 2차 피드백)을 받도록 하였다. 전 과정 소요기간은 2주인데, 1차 피드백과 2차 피드백 간격은 한 주이며 원어민 피드백이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은 다음 텍스트를 번역하고 한국인 교수자에게 피드백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원어민 교수자의 피드백은 학생 본인뿐 아니라 한국인 교수자도 받아보도록 하였다. 즉, 한국인 교수자가 원어민 교수자의 피드백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수업을 고안했다. 이러한

수업 방식은 박지영 2020에서 제시한 번역사가 감수자의 감수 평가에 참여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인 교수자는 원어민 감수자에게서 받은 피드백 내용을 바탕으로 감수자 교육이나 감수 관련 지침을 만드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박지영, 2020, pp. 19-20).

상기 제시한 전체 피드백 과정을 흐름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팀 티칭 피드백 흐름도



4.2 학생 만족도와 감수자 의견 조사 결과 및 논의

다음은 팀 티칭 방식을 적용한 한영번역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 및 원어민 교수자의 의견 조사 결과이다. 해당 수업은 2020년 2학기부터 2023년 2학기에 진행된 수업 중 세 학기 수업을 들여다보았다. 세 학기만 살펴본 이유는 설문조사를 이들 학기에 실시했기 때문이다. 대상 학생은 총 18명으로 전체 학생 대비 참여율은 78%인데, 2020년도 2학기에 7명, 2022년 1학기에 6명, 2023년 2학기에 5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원어민 교수자는 2022년 1학기과 2023년 2학기에 감수를 담당한 두 명의 원어민이 의견을 제출하였다. 조사 결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한국어 교수자와 영어 원어민 교수자와 함께하는 팀 티칭 방식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어민 교수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학생 번역에 대한 의견 외에도 같이 협력하는 한국인 교수자에 대한 요청사항도 포함되었다.

4.2.1 학생을 대상으로 한 팀 티칭 만족도 조사 결과

1) 강의자 관련 선호도

강의자 관련 선호도 조사에서 팀 티칭이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한국인 교수자만 수업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1명(5.6%), 영어 원어민 교수자만 수업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2명(11.1%)이지만, 한국인 교수자와 영어 원어민 교수자가 협력하여 진행하는 팀 티칭은 15명(83.3%)으로 대부분의 학생이 이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
강의자 관련 선호도

	한국인 교수	영어 원어민 교수	팀 티칭
학생 수	1	2	15
백분율	5.6%	11.1%	83.3%

2) 팀 티칭 진행 방식

한국인 교수자가 출발어 텍스트 내용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고, 영어 원어민 교수자가 감수를 하는 팀 티칭 방식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는 내용이다. 대단히 만족 7명(38.9%), 만족 8명(44.4%), 보통 3명(16.7%)이며, 불만족과 대단히 불만족을 선택한 학생은 없다(<표4>). 이로 볼 때, 팀 티칭 방식에 만족을 표하는 학생은 15명(83.3%)으로 상기에서 조사한 강의자 관련 선호도에서 한국인과 영어 원어민이 함께 진행하는 수업에 대한 만족도 결과(83.3%)와 동일한 것으로 조사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두 강의자가 협력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과 한국인 교수자와 영어 원어민 교수자 간 분업 내용에 대한 만족도 모두 대부분의 학생에게 있어 높게 나타났다.

표 4
팀 티칭 방식

	대단히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대단히 만족
학생 수	7	8	3	0	0
백분율	38.9%	44.4%	16.7%	0%	0%

3) 원어민 교수자의 감수

원어민 교수자의 감수에 대해서는 대단히 만족 4명(22.2%), 만족 9명(50%), 보통 5명(27.8%), 불만족과 대단히 불만족은 0명으로, 강의자 관련이나 팀 티칭 방식에 대한 만족도(83.3%)보다는 낮지만 대다수의 학생(72.2%)이 만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5>).

표 5
원어민 교수자의 감수

	대단히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대단히 만족
학생 수	4	9	5	0	0
백분율	22.2%	50%	27.8%	0%	0%

원어민 교수자의 감수 만족도와 관련한 주관식 답변은, 만족을 표현하는 답변이 많았고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있었다. 만족한다고 답변한 경우는 11건으로, 특히 원어민이 사용하는 영어 표현 및 영어 용법으로 수정 받는 것에 대한 내용이 다수를 이루었고, 개선해야 할 점은 2건으로 감수자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대한 아쉬움과, 번역을 수정한 내용에 대한 설명 부족이 있었다. 다음은 학생들이 작성한 응답 내용이다.

가) 만족할 경우 어떤 점이 만족스러운가?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표현을 배울 수 있다. - 원어민들의 표현을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표현을 알려준다. - 다른 표현 방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

- 원어민에게 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점.
- 반복적으로 하던, 저도 모르던 잘못들(문법, 잘못된 표현의 반복)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과목 특성상 원어민 감수가 있는 것이 좋다.
- 원어민이 자주 사용할 법한 수정사항이 괜찮음.
- 영어 표현, 어휘, 구조를 확인할 수 있어서.
- 더 자연스러운 표현을 배울 수 있어서.
- 원어민이 사용하는 영어를 확인할 수 있어 좋았다.

나) 개선할 점이 있다면?

- 구글 검색 시 자주 사용하는 표현임에도 개인적 주관으로 내용을 수정하려는 경우가 있어, 큰 틀에서 보지 못하는 아쉬움.
- 왜 고쳐주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음. 모든 설명이 어려운 경우, 몇 가지 경우라도 설명해주면 좋겠다.

4) 추천 여부

팀 티칭 한영번역 수업을 다른 학생들에게도 권하고 싶은지를 묻는 문항에서 대단히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은 8명(44.4%), 그렇다는 5명(27.8%), 보통은 5명(27.8%),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는 0명으로 조사되어 상기 문항과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학생이 본 수업을 다른 학생들에게 추천할 것이라고 대답했다(<표6>). 이 문항은 팀 티칭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라는 점에서 중요한 항목으로, 13명(72.2%)의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권하고 싶다고 답해서 2)번 팀 티칭 방식에 대한 답변(15명, 83.3%)보다는 수치가 약간 낮으나 대단히 그렇다고 답한 학생은 팀 티칭 방식에 대한 답변(7명 38.9%)보다 본 문항이 조금 더 높았다(8명, 44.4%). 이러한 수치는 전체 응답자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학생이 본 수업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전체 수업 방식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사료된다.

표 6

다른 학생들에게 권하고 싶은지 여부

	대단히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대단히 그렇지 않다
학생 수	4	9	5	0	0
백분율	22.2%	50%	27.8%	0%	0%

5) 기타 의견

본 문항은 마지막 문항으로, 설문에 추가한 이유는 응답자가 미처 답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조사자가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는 한편 4)번까지 조사한 결과를 확인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 문항에는 5명의 학생이 답을 했는데 3명은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2명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언급했다. 긍정적인 답변은 짧은 단답으로, 전체적인 만족도를 표하는 것이고, 부정적인 답변은 내용이 길고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특이할 만한 사항은 이 두 학생의 답변이 외국인 감수자와 관련이 된 것이라는 점인데, 한 학생은 영어 원어민 감수자의 감수가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메일 교환을 통해 받는 내용이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으나 원어민 감수 과정을 추가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 제기였다. 다른 학생은 정확한 표현을 찾고자 했으나 찾지 못했다며 답답함을 표현하는 내용이다. 사실 이 학생은 감수자의 감수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는지를 묻는 3)번 문항에서도 감수자의 설명이 부족함을 들고 있다.

이에 따라 5)번 문항(기타 의견)에서 부정적인 답변을 한 학생의 답변 내용과 3)번 문항(원어민 감수자의 감수)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한 내용이 겹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요약하면, 이메일로 주고받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학생이 받고자 하는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메일로만 소통하는 감수자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감수자의 보다 적극적인 피드백인데, 차후 감수자와의 대면 피드백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 대면 피드백의 주기는 매주는 아니더라도 격주나 한달에 한 번 정도 주기적으로 학생과 만남을 갖고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만남은 오프라인이면 가장 좋을 것 같고 오프라인이 어려울 시에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메일로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나는 시간은 10~20분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

아래 내용은 기타 의견을 묻는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이다.

가) 긍정적인 답변

- 없음.
- 현재 방법에 아주 만족합니다. 계속 유지해 주세요.
- 매주 과제를 하면서 교수님 피드백을 제때 받아서 좋습니다.

나) 부정적인 답변

- 한영을 지도해주신 두 분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영을 공부하면서 몰음표로 남겨놔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게 맞나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속이 시원하지 않다고나 할까요? 이러한 한영번역에서 오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 원어민 교수님과 이메일 교환 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서로 대화도 하며 진행되는 과정에서 배울 것이 있었고, 레지스터에 대한 평가도 받게 되는 점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과정인지는 잘 판단이 서지 않고 없다고 해서 아쉬울 것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2.2 감수자 설문 조사

영어 원어민 감수자를 대상으로 번역 감수와 관련한 간단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서술식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에서 감수자들은, 학생들이 영어 단어나 표현에 대한 지식은 있으나 전체적인 글쓰기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답했다. 또한 한영번역 실력을 개선하기 위한 방편으로 잘된 글을 많이 읽고 자연스런 글쓰기를 할 것을 조언하였다. 하기에, 학생 번역의 1) 장점 2) 개선점 3) 학생을 위한 조언 4) 한국인 교수자에 대한 요청 순으로

감수자의 의견을 요약하였다.

1) 학생 번역에서 잘된 점은?

학생 번역의 장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 학생들이 영어 단어를 많이 알고 있으며, 다양한 단어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감수자: 학생들이 영어 단어를 잘 안다고 생각

I think that all the students have an impressive knowledge of English vocabulary.

B 감수자: 다양한 단어와 표현의 사용

Students seemed to thrive at translating segments of text using various vocabulary and expressions that are commonly used. This variety of vocabulary and expressions really helped with meaning and getting a feel for the original message.

2) 개선점

A 감수자는 학생들이 자연스러운 영어 문장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으며, B 감수자는 문장단위를 넘어 텍스트 단위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즉, 학생들이 단어와 표현은 많이 알고 있지만 전반적인 텍스트의 흐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장 및 문단 간 자연스러운 연결, 그리고 텍스트의 시작과 끝과 같은 텍스트의 구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인데, 상기에서 언급한 단일 언어(intralingual) 감수 측면에서 전체적인 텍스트의 자연스런 흐름의 결여를 지적한 것이다.

A 감수자: 자연스러운 영어 문장 사용에 어려움

I think the students struggle to construct natural-sounding English sentences. Since Korean sentences differ in structure, the students find it difficult to include all the necessary information in their translations while also maintaining a natural tone.

B 감수자: 텍스트 메시지와 구조의 전체적인 조화 필요

In the previous question, I said students thrive at translating segments of text. I would hope that students can also focus on the overall message and the structure of the entire piece of writing. At times it felt like a segment of text was just that, an island of itself without much relation to the previous or following paragraphs. Maybe the next step would be to translate the text and then take a step back to see the entire composition. Consider how the work is presented to an English reader. For example: does it have a beginning and an ending? Or does it start and/or end abruptly? Is it easy to read and understand how all the pieces of text fit together? Or are they islands of sentences that don't quite fit with one another?

3) 학생을 위한 조언

학생 번역에서 개선할 방편으로, 다양한 자료를 접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특히 격식체 텍스트를 읽고 일반적인 표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배울 것을 주문한다. 더불어, 문장부호를 포함한 문단 구조와 같은 형식적인 측면에 대한 내용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형식적인 부분은 일반적으로 한국어 교수자의 경우 많이 다루지 않는 내용인데, 영어 원어민 교수자의 경우는 상당히 중요시하는 것을 볼 수 있어 한국어 교수자의 관점을 보완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A 감수자: 영어 자료 많이 듣고 읽기. 영어 매체를 통해 자연스러운 영어 익히기

I would advise them to read and listen to as many English materials as they can. I think the most effective way to learn what natural English sounds like is to consume English media that is slightly more difficult than their current level, so they don't waste time or become frustrated.

B 감수자: 뉴스 기사와 같은 격식체 텍스트를 읽고, 생각을 어떻게 글로 표현하는지 배우기. 문장부호, 대문자 표기 유의하기

Reading English news articles from a variety of trusted news sources may be helpful to see how common expressions are used, how capitalization and punctuation are implemented, and how other professional writers simply organize and present their ideas for greater effect.

Some students had paragraphs and indentations, while others had sentences and lines only. Some paragraph structure would add greater organization and professionalism in the presentation of their work. Those who did not have paragraph structure gave the impression that they were more focused on simply translating the text only.

4) 한국인 교수자에 대한 요청

본 문항은 한국인 교수자에 대한 제안이나 요청 사항이 있는지 문의하는 내용이다. A 감수자는 해당 질의에 대해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고, B 감수자의 답변에는 한국인 교수자에 대한 제안과 요청이 있었다. B 감수자의 제안 내용은 학생들이 범하기 쉬운 일반적인 문제를 정리하여 학생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요청사항은 해당 텍스트에서 이슈가 되는 내용과 학생들의 전반적인 번역 경향과 중점을 두고 감수해야 하는 사항을 사전에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본 답변을 통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첫째, 원어민 감수자가 흔히 하기 쉬운 실수와 같은 정보를 취합하여 제공하는 것(박지영, 2020, p. 20)뿐 아니라 학생이 일반적으로 하는 실수 등에 대한 정보도 취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며, 한국어 교수자와 영어 원어민 교수자는 반복되는 실수를 제외한 보다 심도 있는 피드백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인 교수자가 출발어 텍스트를 준비하고 학생 번역에 대한 첫 피드백을 주는 체계에서 한국인 교수자는 상기 B 감수자가 언급한 학생들의 번역 경향이나 중점을 두고 감수해야 하는 지점을 미리 알려주어 감수자의 편의를 돕는 동시에 감수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한국어를 모르는 감수자의 경우, 해당 출발어 텍스트에 대한 참고용 번역을 제공하거나 요약본을 제공할 수 있다. 더불어, 감수자가 학생 번역을 받게 되는 요일 및 시간 협의와 같은 소

소한 행정적 부분 등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A 감수자: 없음

B 감수자: 해당 주제 유의하여 감수할 부분과 전반적인 번역 경향 및 초점을 두고 감수해야 할 내용을 포함하여, 한국인 교수자와의 더 많은 소통의 필요성 언급

I think C(한국인 교수자) and I could have had more communication with one another. I should have communicated to him/her any weekly issues and common trends I had noticed in the writing. And perhaps C could communicate with me about what s/he'd like me to focus on when reviewing the writing from students. Then again, having some idea of what topics they were covering during that week might give me some idea too.

5. 결론

본고는 한국인 교수자가 한영번역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국내 현실에서, 효과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이론 틀로는 영어 교육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Friend 등의 다섯 가지 코 티칭 형태(co-teaching structure)와 번역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감수 및 감수자 관련 연구를 사용하였다. 실행연구(action research)의 성격을 가진 본 연구는 교수-지원 형태의 한 예로서, 한국인 교수자가 주도하고 영어 원어민 교수자가 감수자의 역할을 하는 형태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러한 형태를 도입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통번역대학원의 예를 사례로 제시했다.

본고에서 교수-지원 형태의 팀 티칭을 상정했지만, 다양한 형태의 팀 티칭이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인 교수자와 영어 원어민 교수자가 각각 자신 있는 부분을 가르치는 스테이션 교수 형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스테이션 교수 형태는 두 그룹을 나눠서 진행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는 그룹을 나누지 않고 한 그룹에 대해 두 교수자가 다른 내용을 가르치

는 수정된 형태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스테이션 교수 형태의 경우, 두 교수자가 함께 수업 계획을 세울 가능성이 높으므로 본고에서 제시한 교수-지원 형태에서 제기된 학생과 감수자 간 소통 부족 문제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다. 또한 영어 원어민 교수자가 한국어를 알고 번역 경험이 있는 경우라면 두 교수자가 수업을 동등하게 분담하는 협력형 교수 형태도 시도해볼 만 할 것이다.

팀 티칭에서 중요한 요소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본고에서는 소통의 문제가 단연 부각되었다. 영어 원어민 감수자와 학생 간 소통과, 한국인 교수자와 영어 원어민 감수자 간 소통이 그것이다. 먼저 전자의 경우, 감수자와 학생 간 소통을 위해서는 이메일을 통한 대화 외에도 가급적 감수자가 수업에 나와 학생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같은 날 감수자의 수업이 있는 경우에는 대면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화상회의를 통해 참여하여 감수 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업에 나오는 횟수가 적을 경우 학생들의 질문을 모아서 한꺼번에 질문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한국인 교수자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원어민 교수자가 영작문 등의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유사한 이슈가 제기될 때 자신의 수업 시간 중 일부를 할애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 교수자와 영어 원어민 감수자 간 소통과 관련해서는, 감수자에 대한 교육이나 감수자가 하기 쉬운 실수를 수집한 목록의 제공과 같이 감수자를 모니터링하는 사항뿐 아니라, 중점을 두고 감수해야 하는 내용이나 학생들이 자주 하는 실수와 같이 감수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부분도 고려에 넣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영번역 교수 자원이 부족한 국내 상황을 감안하여 대안을 찾으려는 시도로서 그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번역 분야에서의 팀 티칭 연구 부족에 따른 타 분야 연구 방법의 차용은, 향후 연구에서 한영번역에 맞는 보다 정교한 방법의 개발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한영번역 수업의 문제점 및 한계와 팀 티칭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학문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한영번역 수업의 팀 티칭 방안에 대한 학자 및 교육자 간 다양한 의견과 경험의 공유가 이루어져 한영번역 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화의 장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길인숙. (2004). 원어민과의 협동수업이 학습자의 정의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 *영미어문학연구*, 20(2), 35-54.
- 김미영. (2013). 교양영어 및 팀 티칭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과 만족도 연구. *코기토*, 74(2), 105-126.
- 김미영, 김재윤. (2013). 교양영어 및 그 팀티칭에 대한 인식 연구: 한국인 교수와 원어민 교수의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언어과학*, 20(2), 31-56.
- 박옥희. (2015). 원어민과 한국인 교수의 팀티칭에 의한 효과적인 교양영어 프로그램 방안 연구. *외국어학연구*, 31, 41-70.
- 박지영. (2018). 국내 감수 실무 관행에 관한 고찰: 감수 절차 및 감수 항목을 중심으로. 19(2), *번역학연구*, 147-173.
- 박지영. (2020). 감수자 자격과 감수 품질에 관한 제언: 한영번역에 대한 원어민 감수를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22(3), 1-27.
- 신지선. (2007). 공공기관 번역현황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번역학연구*, 8(2), 75-101.
- 여경희. (2012). 대학 교양영어 수업에서의 원어민교수와 비원어민교수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및 태도 연구. *영미어문학*, 105(4), 275-301.
- 이미진, 성귀복. (2011). 영어 협력수업에서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교사의 역할 양상 연구. *교육문화연구*, 17(1), 225-260.
- 이향. (2003). 번역물 감수의 정의.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5(1), 163-181.
- 이현우, 이소영, 성귀복. (2010). 원어민 사업의 교육적 효과 분석. 2010 인천광역시 교육청 정책연구 보고서.
- 정길정, 민찬규, 박매란. (1999). 원어민 영어 교사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초·중등학교 영어 협동 수업 현황 조사 연구. *영어교육*, 54(2), 203-230.
- 조정순. (2002). 대학 교양영어 교육의 현황과 방향성 탐구. *영어교육*, 57(2), 365-394.
- Al-Shehari, K. (2017). Collaborative learning: Trainee translators tasked to translate Wikipedia entries from English to Arabic.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11(4), 357-372.

- Choi, J., & Lim, H.-O. (2000). An overview of the Korean translation market. *Meta*, 45(2), 383-392. <https://doi.org/10.7202/002235ar>
- EPIK. (n.d.). Welcome to the English Program in Korea. Retrieved January 11, 2024 from <http://www.epik.go.kr/contents.do?contentsNo=83&menuNo=333>
- Friend, M., Reising, M., & Cook, L. (1993). Co-teaching: An overview of ten past, a glimpse at the present, and consideration for the future. *Preventing School Failure*, 37(4), 6-11.
- Huh, S., & Lee, J. (2015). An instructional model of team-teaching in a university general English program. *Foreign Languages Education*, 22(2), 197-223.
- Jang, S. (2006). Research on the effects of team teaching upon two secondary school teachers. *Educational Research*, 48(2), 177-194.
- Jung, Y. (2020). Perceptions of team-teaching between native and nonnative English teachers in Korean secondary schools. *Modern English Education*, 21(2), 49-61.
- Kim, S. S. (2010). The role of teachers in team teaching. *Korea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26(1), 113-137.
- Lim, H.-O. (2005). Working into the B language: The condoned taboo? *Meta: Translators' Journal*, 50(4).
- Liu, L. (2013). Co-teaching between native and non-native English teachers: An exploration of co-teaching models and strategies in the Chinese primary school context. *Reflections on English Language Teaching*, 7(2), 103-118.
- Reinhiller, N. (1996). Co-teaching: new variations on a not-so-new practice. *Teacher Education and Special Education*, 19, 34-48.
- Zwischenberger, C. (2022). Online collaborative translation: Its ethical, social, and conceptual conditions and consequences. *Perspective*, 30(1), 1-18.

A study of team-teaching in a Korean-English translation classroom

Gyung Hee Choi (gchoi@ptu.ac.kr)

Department of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GSTI, Pyeongtaek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methods for implementing team-teaching in Korean-English translation classrooms in South Korea. Team-teaching refers to the practice of two teachers working together regularly to assist students in learning. This approach is particularly beneficial for translator training in South Korea, where non-native English-speaking Korean teachers often need to teach English translation. Despite the well-documented advantages of team-teaching, research on this approach is rare in translation studies. Taking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this study employs Friend, Reising and Cook's (1993) co-teaching model, originally developed in field of English education, and incorporates Park's (2018, 2020) work on revision from translation studies. The outcomes of the study are twofold. First, the study proposes a team-teaching strategy featuring a "one-teach and one-assist" structure, where a Korean teacher leads instruction and a native English teacher provides revisions of students' translations. Second, the study applies this strategy to a graduate-level translation program in South Korea, producing satisfactory results as indicated by a post-semester student survey.

Keywords: Team-teaching; Korean-English translation classroom;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one-teach and one-assist structure; translation revision

키워드: 팀 티칭, 한영번역 교실, 학제 간 접근, 교수-지원 형태, 번역 감수

최경희(<https://orcid.org/0000-0001-2546-3266>)
평택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통번역학과 부교수
gchoi@ptu.ac.kr

논문 투고일: 2024년 5월 15일
1차 심사 완료: 2024년 5월 30일
2차 심사 완료: 2024년 6월 9일
게재 확정: 2024년 6월 15일